

제 목	그람 양성균 감염증에서 Vancomycin과 Teicoplanin 의 임상효과와의 비교 연구
연구자	최강연, 오명돈, 배현주
소 속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내 용	<p><b>연구 배경:</b> 최근 개발된 Teicoplanin은 glycopeptide계의 항생제로서 vancomycin과 그 작용 기전이 비슷하지만, 근육 주사가 가능하고, 반감기가 길어서 하루 한번 주사하여도 되며, 빨리 주입하더라도 red man syndrome이 생기지 않는 장점이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그람 양성균에 의한 감염증을 치료하는데 teicoplanin이 효과적이고 안전한지를 vancomycin과 비교하는 것이다.</p> <p><b>대상 환자 및 방법:</b> 서울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그람 양성균 감염증이 확인되거나 강력히 의심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감염증의 종류는 패혈증, 골수염, 하기도 감염증, 감염성 관절염, 피부 및 연조직 감염증, 요로 감염증으로 하였다. 대상 환자를 무작위로 teicoplanin 또는 vancomycin군에 무작위 배정하였다. Teicoplanin은 처음에 loading을 위하여 400mg씩 12시간마다 3회 주사하고 이후에는 중증 감염이면 하루에 400mg, 중등증이면 200mg씩을 주사하였다. Vancomycin은 500mg을 6시간마다 또는 1.0g을 12시간마다 정맥주사 하였다. 치료 기간은 요로 감염증 5-10일, 하기도 감염증 5-10일, 패혈증 14-21일, 골수염 21-42일, 세균성 관절염 21-42일, 피부 및 연조직 감염증 5-10일로 하였다.</p> <p><b>연구 성적:</b> Vancomycin과 teicoplanin을 투여받은 환자는 각각 24명이였다. Vancomycin을 투여받은 환자들의 나이는 19세부터 70세로 그 중앙값은 57세였고, teicoplanin군은 16세에서 71세로 중앙값은 40세였다. 남녀비는 vancomycin군은 남 15:여 9, teicoplanin은 남 16:여 8 로 양군 모두 남자 환자가 여자환자보다 많았다. 각 군의 감염증은 표 1과 같았다.</p> <p>치료받은 환자중 임상적인 반응을 평가할 수 있었던 환자수는 vancomycin을 투여받은 환자들(이하 vancomycin군으로 줄여 씀) 24명중 23명, teicoplanin을 투여받은 환자들(이하 teicoplanin군으로 줄여 씀) 24명중 20명이였다. Vancomycin군중 임상적 반응을 평가하는데서 뺀 1명은 수술뒤 흉막강에 MRSA에 의한 농양이 생겨 vancomycin을 투여받던중 29일째에 뇌출혈로 사망하였던 환자다. Teicoplanin군에서 평가에 뺀 3례는 항균제 투여중 간경변증에 의한 식도출혈 1례, 수술후 위장관 출혈 1례, 뇌 색전증으로 죽은 1례, 봉와직염이란 임상진단이 조직검사결과 근육을 침범한 악성종양으로 밝혀진 1례였다.</p> <p><b>결 론:</b> Teicoplanin은 그람양성균의 치료에서 vancomycin과 대등한 효과를 보였다. 전신적 발적을 나타낸 1례를 제외하고는 신독성 및 기타 독성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안전성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p>